



죽비와 목탁



### 죽비와 목탁

## 버들가지여, 대중문화와 포용하라

불교극단 양지무리(대표 남우성)가 창단 초연으로 연극 '매혹'을 무대에 올렸다. 셰익스피어의 '맥베드'가 환상한 듯 한 바탕 진상의 앓음알이를 선사했다. 그러나 '양지무리'가 두 다리 고통의 향을 피운 향료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초연의 열정이 피운 침 한해는 그윽했지만 제작기반 환경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매혹은 다시 태어날 수 없다.

불교문화와 대중문화의 간극은 좁혀야만 한다. 한국 대중가요에 가장 많이 등장한 나무가 버드나무라는 사실을 아는가.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님 원손에 둘러진 것 또한 버들가지다. 보살의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버들가지가 땅을 향해 있는 것은 중생 구제의 서원을 상징한다. 시대와 사랑을 서정적인 노래로 드러내는 버드나무와 공감하는 불교의 치유 능력이야.

그렇다면 과연 종교성을 지닌 공연은 대중문화로 성공 가능한가? 먼저 이웃 종교의 뮤지컬 '지저스 크리스티 스타 슈퍼스타 (Jesus Christ Superstar)'를 예로 들어 보자. 1971년 브로드웨이 마크 헬링턴 극장에서 초연됐을 때, 극장 밖은 흥분한 기독교인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예수 역을 띤 그룹 '딥 퍼플

(Deep Purple)'의 보컬 이안 길런(Ian Gillan)이 맡고, 열두 제자들은 히피였기 때문이다. 락과 히피가 반전주의 저항 정신을 의미하던 당시에 신성 모독으로 평가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20-30대를 대상으로 공감에 성공, 초연 후 37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러 버전으로 번안돼 세계 각국에서 공연되는 스테디셀러가 됐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일생은 어떠한가. 중생을 위해 길 위에서 태어나 길에서 전법하시다가 열반에 드신 생애는 대서사시이자 로드무비로 구현되기에 충분하다. 부처님의 정신은 오롯이 살리면서 이 시대 소비정신에 부응한 유희의 변주곡을 연주한다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스타배우도 절실하고 거대 자본력과 거장감독의 연출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거창한 꿈보다 직시해야 할 본질은 관세음보살의 버들가지에 있다. 화제의 뮤지컬 '맨오브라만차 (Man of La Mancha)'에서 돈키호테를 연기하는 배우 조승우를 통해 부처님의 구도행을 엿봤다면 어떨까.

서울 올림픽경기장에서 공연될 '오! 마이 붓다 슈퍼스타 (Oh! My Buddha Superstar)' 공연에서 환희에 울트는 버들가지가 보는 꿈은 정말 '꿈'에 불과할까?

# “불제자로서 화해·상생정치 펼칠 것”

## 제18대 국회 정각회 출범식·기념법회 봉행

“일불제자로서 정법을 선양하고, 대승보살 정신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제18대 불자국회의원들이 7월 23일 오전 7시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18대 국회 정각회 출범식 및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세인 스님(조계사 주지), 승원 스님(기회실장) 등 종단 교역직스님, 흥과 스님(종단협의회 회장), 김의정 회장(중앙신도회), 허태수 회장(국회직원불교신도회), 제18대 국회의원 20여명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함께했다.

출범식에서 의원들은 제18대 국회 전반기 정각회장으로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을 선출했다. 정각회 부회장은 안홍준 의원(한나라당)과 강창일 의원(민주당), 간사장은 이광재 의원(민주당), 간사는 조문환 의원(한나라당)과 최문순 의원(민주당), 감사는 이재진 의원(한나라당)과 최



7월 23일 조계사에서 열린 '제18대 국회 정각회 출범식 및 기념법회'에서 불자의원들이 '반야심경'을 봉독 중이다.

재성 의원(민주당)을 임명했다. 신임 정각회장 최병국 의원은 취임사에서 “사찰에 각종 규제가 많다. 정각회가 힘을 보태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힘쓰겠다”며, 불자로서 화해와 상생의 정치를 펼칠 것을 다짐했다.

지관 스님은 법문에서 “불교의 기본사상인 상즉(相卽)과 불이(不二)의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평화와 행복을 성취한다”며, “18대 정각회 회원들은 여야 구별 없이 나라와 가정, 불교를 생각하는 한마음으로 의정활동을

## “불교계 제 목소리 낼 때”

### 정각회장 최병국 의원

“부처님은 묵빈대처(默賓對處)하라는 가르침도 주셨으나, 이제는 불교계가 제 목소리 내야 할 때입니다.”

7월 23일 조계사에서 열린 '제18대 국회 정각회 출범식 및 기념법회'에서 상반기 국회 정각회장으로 선출된 최병국 의원(한나라당, 법명: 興仁·사진)은 고위 공직자들의 잇단 종교편향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병국 회장은 “일부 공직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과잉충



특정 종교 선양을 넘은 범죄행위"라 지적했다. 최병국 회장은 “국회 정각회원이 59명이지만 결속력이 약한 것이 문제”라며, “불자 국회의원을 결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8대 국회 정각회는 한나라당 43명, 민주당 11명, 자유선진당 3명, 친박연대 1명, 무소속 1명 등 59명의 불자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이는 제17대 국회 정각회원 36명을 상회한 숫자다. 불자의원들의 약진 속에 구성된 제18대 국회와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지 교계가 주목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 “종교편향 재발방지 법제화를”

###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 대정부 결의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역사적 결단에 나서겠다.”

조계종 25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항의해 국민화합과 종교평화 실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의장 지관)는 7월 24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2008년 제2차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에 드리는 촉구’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성명서에서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편중인사와 쇄고기 수입을 둘러싼 미국과의 졸속 협상, 그리고 이에 반발하여 제기된 저항에 대한 정부의 편협한 인식과 수습 조치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본사 주지스님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민족을 화합시키는 데 통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종교편향 행위 근절을 위한 당사자 엄중 문책 ▲종교편향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조치 시행 ▲촛불시위 구속자 석방 및 수배자 수배 해제 등을 촉구했다.

스님들은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는 더 이상 내면의 평화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사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조계종은 정부의 종교편향에 총무원 직속 종교편향대책기구를 구성해 강력대응 하는 한편 교계에 범종단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해 법률교차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교구본사주지회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금강산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황우석 박사의 연구승인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조동섭 기자

## “공직자 종교편향 재발 없을 것”

### 한 총리 지관스님 예방

한승수 국무총리가 7월 2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찾아 공직자 종교편향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 총리는 “소통이 화두인 시대에 오해를 풀려왔다”며, “알고 가 등 종교편향 사건으로 불교계에 심려 끼쳐 죄송하다. 국무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승수 총리의 발언에 지관 스님은 독도 문제, 금강산 관광객 피살건 등에 대해 언급한 불교계 종교편향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에 배석한 손안식 위원장(종교평화위원회)이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공직자의 종교편향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불교계의 요구”라 전달했다.

한 총리는 “유념하겠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대답했다.

총리의 조계종 방문과 관련해 7월 22일 시국법회추진위원회가 성명서를 내 비판하고 7월 24일 불교연석회의가 “성의 없는 정부 태도에 분노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교계 반응은 싸늘하다.

조동섭 기자

## 영배 스님 원심 유지 징역 10월·집유 2년

신정아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화는 7월 22일 열린 신정아씨와 변양균 前 실장(청와대 정책실)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신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영배 스님 등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똑같이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직권을 남용해 흥덕사에 국고지원을 한 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후원금을 횡령한 박문순 성곡미술관장과 박 관장의 동생은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120시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영배 스님은 개인 사찰인 울주 흥덕사에 변양균 前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국고지원을 요청해 배정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조동섭 기자

##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디자이너(사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 빙의 치유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인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풀릴수 있습니다.

###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빙의, 퇴마, 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 타인최면을 배우실분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 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침술,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기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 특별보시금 60만원
- ▷ 실전교육으로 책임 전수함
- ▷ 교육시간(매일) 오후 2시 - 3시 30분 / 오후 6시 30분 - 8시
- ▷ 특별교육 : 시간,요일 조절가능
- ▷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 제 1기 단전호흡·명상·최면 수강생 모집

▷개강 : 2008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지장사 법당  
매주(수) 오전 10시 - 11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9시

##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